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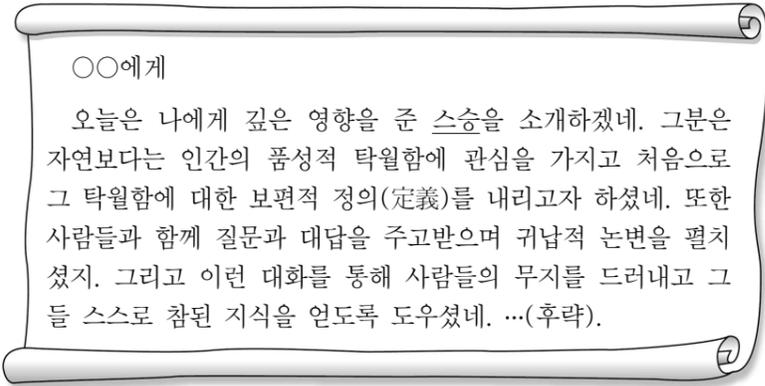
제 4 교시

사회탐구 영역 (윤리와 사상)

성명		수험번호					3			제 () 선택
----	--	------	--	--	--	--	---	--	--	----------

윤리와 사상

1. 그림은 고대 서양 사상가의 가상 편지이다. 밑줄 친 ‘스승’이 강조한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

- ① 마음의 평온함을 위해 세속에서 벗어나 자연에 은둔한다.
- ② 덕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성찰한다.
- ③ 인간 이성의 한계를 겸허히 수용하고 유일신에 의지한다.
- ④ 진리의 상대성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견해를 존중한다.
- ⑤ 다수가 선호하는 가치에 따라 자기 삶의 방식을 결정한다.

2. 다음 동양 사상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<보기>에서 고른 것은?

모든 동물의 발자국은 코끼리 발자국 속에 들어온다. 마찬가지로 모든 진리는 네 개의 거룩한 진리[四聖諦] 안에 들어온다. 그중 고통[苦]의 발생에 관한 진리는 이것이다. 즉 과보(果報)를 일으키고 만물에 집착하는 갈애(渴愛)가 고통을 불러온다는 것이다.

- < 보 기 > —
- ㄱ. 무아(無我)를 자각하면 애욕과 번뇌를 끊을 수 있다.
 - ㄴ. 무상(無常)한 것을 고정된 실체로 보면 고통을 겪는다.
 - ㄷ. 무명(無明)에 이른 후에야 연기(緣起)를 인식할 수 있다.
 - ㄹ. 무지(無智), 탐욕, 분노를 제거해야 윤회를 거듭하게 된다.

- ① ㄱ, ㄴ ② ㄱ, ㄷ ③ ㄴ, ㄷ ④ ㄴ, ㄹ ⑤ ㄷ, ㄹ

3. 고대 동양 사상가 갑,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 [3점]

갑: 통치자는 재정이 궁핍한 것을 걱정하지 말고 분배가 고르지 못함을 걱정해야 하며, 백성이 적은 것을 걱정하지 말고 나라가 평안하지 않음을 걱정해야 한다.

을: 통치자가 무위(無爲)하면 백성은 스스로 순화되고, 통치자가 고요함을 좋아하면 백성은 스스로 바르게 되며, 통치자가 욕심이 없으면 백성은 스스로 소박해진다.

- ① 갑: 통치자는 백성을 편안하게 한 후에 자신을 수양해야 한다.
- ② 갑: 예약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름을 바로잡아야[正名] 한다.
- ③ 을: 천하에 도(道)가 있으면 백성은 스스로 인의를 실천한다.
- ④ 을: 인위적 통치가 사라지면 문명이 발달하고 인륜이 구현된다.
- ⑤ 갑, 을: 법령과 형벌은 통치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.

4. (가)의 갑,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, (나)의 ㉠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(가)	<p>갑: 계급 대립의 부르주아 사회가 사라지고 모든 생산이 개인들의 연합체에 집중되면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은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된다.</p> <p>을: 정의로운 국가를 구성하는 세 계층의 사람들은 각자의 성향에 맞는 한 가지 일에만 종사하며 타인의 일에 참견하지 않는다.</p>
(나)	<p>학 생: 이상 사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?</p> <p>사상가: _____ ㉠ _____</p>

- ① 갑: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이 생산수단을 함께 소유합니다.
- ② 갑: 개인은 어떤 착취도 당하지 않고 일한 만큼 분배받습니다.
- ③ 을: 구성원 모두가 절제의 덕을 지니고 있고 서로 화합합니다.
- ④ 을: 재산의 사적 소유가 구성원 모두에게 평등하게 허용됩니다.
- ⑤ 갑, 을: 사회적 약자의 인간다운 삶이 국가에 의해 보장됩니다.

5. (가)의 갑,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(나)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, A ~ C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 [3점]

(가)	<p>갑: 내가 삶의 목적으로 보는 쾌락은 방탕한 자의 쾌락이나 감각적 쾌락이 아니라, 심신의 고통으로부터의 자유이다. 쾌락은 행복의 시작이자 끝이다.</p> <p>을: 최대 행복의 원리에 따르면 삶의 궁극적 목적은 양과 질 두 측면에서 가능한 한 고통을 줄이고 쾌락을 풍부하게 향유하는 것이다.</p>
(나)	

- < 보 기 > —
- ㄱ. A: 행위가 산출할 쾌락과 고통의 양은 비교 가능한가?
 - ㄴ. B: 고통이 모두 제거될 때 쾌락은 최대치에 이르는가?
 - ㄷ. C: 쾌락의 질에 대한 평가는 경험과 무관해야 하는가?
 - ㄹ. C: 인간이 쾌락을 바란다는 사실은 도덕 원리의 근거인가?

- ① ㄱ, ㄷ ② ㄴ, ㄷ ③ ㄴ, ㄹ
- ④ ㄱ, ㄴ, ㄹ ⑤ ㄱ, ㄷ, ㄹ

6. 고대 서양 사상이 갑, 중세 서양 사상이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갑: 행복이란 덕을 따르는 정신의 활동이며 완전한 행복은 이성의 관조 활동에 있다. 이성에 따라 활동하고 이성을 돌보는 사람은 신으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다.
 을: 인간의 궁극적 목적은 창조되지 않은 선, 곧 신이다. 인간은 신의 무한한 선을 향유할 때 완전한 행복에 이른다. 이를 위해 자연적 덕과 신학적 덕을 갖추어야 한다.

- ① 갑: 실천적 지혜는 선을 알게 해 주는 품성적 덕이다.
- ② 갑: 이성은 신, 자연, 인간이 공통적으로 갖는 본성이다.
- ③ 을: 완전한 행복은 신의 은총에 의해 현세에서 성취된다.
- ④ 을: 신앙과 이성은 조화를 이루며 어떤 우열도 가릴 수 없다.
- ⑤ 갑, 을: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것은 행복 실현에 기여한다.

7. 근대 한국 사상이 갑, 을, 병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갑: 백성과 선비들이 유교를 존중하고 양물(洋物)을 물리치는 의리를 익힌다면 이것은 정심(正心)의 증거가 된다.
 을: 백성에게 이롭다면 오랑캐의 법도 행할 수 있다. 우리의 도(道)를 잘 시행하면 서양의 기(器)를 행하는 것은 쉽다.
 병: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나라를 도와야 하며, 한울님으로부터 받은 마음을 지키고 기운을 바르게 해야 한다.

- ① 갑: 고유 사상을 기반으로 유·불·도 삼교를 융합해야 한다.
- ② 을: 백성의 이용후생을 위하여 서구식 정부를 도입해야 한다.
- ③ 병: 유교적 가치를 모두 부정하고 신분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.
- ④ 갑, 병: 참된 도로써 백성을 교화하고 국난을 극복해야 한다.
- ⑤ 을, 병: 경천 사상을 중심으로 서양의 종교를 수용해야 한다.

8.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 [3점]

유덕하게 행동하는 것은 이성의 인도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며, 우리가 이성을 통해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은 인식이다. 신을 인식하는 것은 덕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최고선이다. 만인이 동일한 본성을 갖는 한 최고선은 만인 공통의 선이고 만인이 똑같이 소유할 수 있다.

- ① 인간의 자기 보존 노력과 덕을 추구하는 노력은 대립한다.
- ② 인간은 신과 하나가 됨으로써 자연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다.
- ③ 신은 자연 바깥에 있는 실체이자 자연 만물의 내재적 원인이다.
- ④ 지복은 신에 대한 인식에서 생기는 신에 대한 사랑에 존재한다.
- ⑤ 감정은 필연에 의해 일어나지만 이성적 인식의 대상이 아니다.

9. 현대 서양 사상이 갑, 근대 서양 사상이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 [3점]

갑: 도덕의 개념은 인간의 삶이라는 조건으로부터 성장하고 발전한다. 인간은 시인(是認)하고 부인(否認)하며 공감하고 분노함으로써 원하는 대상을 추구한다. 도덕적 선(善)은 오로지 시인할 만한 것으로 나타난다.
 을: 도덕성은 이성의 대상이 아니다. 부도덕한 행동에 대해 발생하는 부인의 감정을 발견할 때까지 우리는 결코 부도덕을 발견할 수 없다. 어떤 행동이 부도덕하다는 말은 우리가 그 행동을 보고 비난의 느낌을 가진다는 뜻이다.

< 보기 >
 ㄱ. 갑: 선한 사람은 성장의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한다.
 ㄴ. 갑: 정의는 획득해야 하는 고정된 목표로서의 선이 아니다.
 ㄷ. 을: 부인의 감정은 인간의 자연적 성향과 무관한 감정이다.
 ㄹ. 갑, 을: 사회적으로 유용한 결과를 낳는 행위는 시인된다.

- ① ㄱ, ㄴ ② ㄱ, ㄷ ③ ㄷ, ㄹ
- ④ ㄱ, ㄴ, ㄹ ⑤ ㄴ, ㄷ, ㄹ

10. (가)의 사회사상가 갑, 을,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(나) 그림으로 표현할 때, A~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 [3점]

(가)	<p>갑: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자연권을 갖지만, 전쟁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상호 신의(信義) 계약에 따라 자연권을 국가에 양도한다. 이 국가를 움직이는 인공적 영혼이 주권이다.</p> <p>을: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오직 자연법만을 따르는 자연적 자유를 갖지만, 사회 상태에서는 최고의 통치 권력인 입법부가 신탁에 따라 제정한 법의 제약을 받는다.</p> <p>병: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자기 힘에 따른 자연적 자유와 취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무제한적 권리를 갖는다. 그러나 사회 계약으로 일반의지에 의해 제한되는 시민적 자유와 재산권을 얻는다.</p>
(나)	

- ① A, F: 사회 계약으로 생명 보존의 권리가 양도됨을 간과한다.
- ② B: 사회 계약은 만장일치로 성립하는 것이 아님을 간과한다.
- ③ C: 자연 상태에서는 자연법만으로 안전할 수 없음을 간과한다.
- ④ D: 사회 계약은 시민이 자기 자신과 맺은 계약임을 간과한다.
- ⑤ E: 사회 구성원 모두 주권과 입법권을 지니고 있음을 간과한다.

11. 그림은 사회사상가 갑, 을의 가상 대화이다. 갑,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<보기>에서 고른 것은? [3점]

자유는 어떤 것을 선택하려는 욕망을 없애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. 그렇게 얻는 것이라면 죽은 사람이 가장 자유롭습니다. 저는 개인이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방해가 없는 상태를 중시합니다. 이런 상태를 '~로부터의 자유'라고 합니다.

자유는 지배자의 게으름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. 자유는 계획에 의해서만 생깁니다. 즉 타인이 자의적으로 간섭할 수 없게 하는 법적·사회적 장치들이 있을 때에만 참된 자유가 발생합니다. 이를 비지배 자유라고 합니다.



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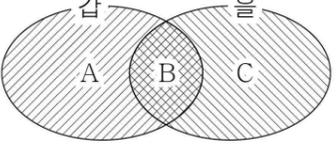
을

< 보 기 >

ㄱ. 갑: 소극적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.
 ㄴ. 을: 지배가 없는 자유로운 곳에서는 간섭이 있을 수 없다.
 ㄷ. 을: 법치가 실현된 곳에서만 비지배 자유를 누릴 수 있다.
 ㄹ. 갑, 을: 권력자의 자의적인 간섭을 막는 제도가 필요하다.

- ① ㄱ, ㄴ ② ㄱ, ㄷ ③ ㄴ, ㄷ ④ ㄴ, ㄹ ⑤ ㄷ, ㄹ

12. (가)의 한국 유교 사상가 갑, 을의 입장을 (나) 그림으로 표현할 때, A~C에 해당하는 옳은 진술만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 [3점]

(가)	<p>갑: 몸은 이(理)와 기(氣)가 합하여 생긴 것이다. 이와 기는 서로 발하여 쓰임이 있고 발하면 서로 따르게 된다. 서로 발함에 각각 주(主)가 되는 바가 있고 서로 필요로 하기에 서로 그 안에 있다.</p> <p>을: 성(性)은 이와 기가 합한 것이다. 이가 기 가운데 있는 뒤에 성이 된다. 맹자가 말한 본연지성과 정자(程子)가 말한 기질지성은 하나의 성이 아니며 정(情)에 이발과 기발의 구분이 있겠는가?</p>
(나)	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left: 20px;"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범 려 ></p> <p>A: 갑만의 입장 B: 갑, 을의 공통 입장 C: 을만의 입장</p> </div>

< 보 기 >

ㄱ. A: 이가 발한 사단과 기가 발한 사단은 서로 다른 것이다.
 ㄴ. B: 경(敬)으로써 마음을 주재해야 성(誠)에 도달할 수 있다.
 ㄷ. B: 남을 측은히 여기는 정의 근본은 성(性)으로서의 인이다.
 ㄹ. C: 인욕을 제거하려면 본연의 성과 기질을 교정해야 한다.

- ① ㄱ, ㄷ ② ㄱ, ㄹ ③ ㄴ, ㄷ
 ④ ㄱ, ㄴ, ㄹ ⑤ ㄴ, ㄷ, ㄹ

13. 사회사상가 갑,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갑: 민주주의는 대중의 승인을 받은 정치가의 통치로 구현된다. 민주주의와 비민주주의를 구분하는 기준은 선거 과정에 정치 엘리트들 간의 경쟁이 있는가이다.
 을: 민주주의는 자유롭고 동등한 시민의 합리적 의사소통을 통해 실현된다. 시민은 합리적 토론을 통해 기존의 선호들을 검토하고 보편적 합의에 도달하게 된다.

- ① 갑: 시민의 투표로 선출된 정치가의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한다.
 ② 갑: 시민과 정치가는 동일한 수준의 정치적 판단력을 지닌다.
 ③ 을: 공론 참여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제한되어야 한다.
 ④ 을: 공론 참여자의 선호는 토론의 과정에서 수정될 수 없다.
 ⑤ 갑, 을: 시민은 공익을 위해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.

[14~15] 갑, 을은 고대 동양 사상가들이다. 물음에 답하시오.

갑: 사람의 수명이 길고 짧음에 의문을 품지 않고 자기를 수양하며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하늘[天]의 명(命)을 다하는 도리이다. 자신의 본성[性]을 알면 하늘을 알게 된다.
 을: 사람의 수명은 하늘에 달려 있고 나라의 운명은 예(禮)에 달려 있다. 예란 성왕(聖王)이 인위적 노력으로 만든 것이지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.

14. 갑은 부정, 을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 [3점]

- ① 마음은 예에 의한 교화가 있는 후에야 선을 인식할 수 있는가?
 ② 군주가 인과 예로 다스려야 백성의 본성은 바로잡히게 되는가?
 ③ 군자와 소인은 자기 본성에 대한 순응 여부에 따라 구별되는가?
 ④ 악행은 육체적 감각이나 후천적 환경의 영향으로 일어나는가?
 ⑤ 예는 하늘을 도덕의 모범으로 삼아 제정된 인위적 규범인가?

15.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옛날 요임금이 천하를 다스릴 때에는 누구나 다 각자의 본성을 즐기도록 하였다. 그러므로 군자가 부득이하여 천하를 다스리게 되었다면 무위(無爲)만한 것이 없다. 무위한 뒤에야 본성과 운명에 편안할 수 있다.

- ① 본성은 본래 작위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아님을 모르고 있다.
 ② 성왕의 예는 무위의 통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임을 모르고 있다.
 ③ 외물에 얽매이지 않아야 시비선악이 명확해짐을 모르고 있다.
 ④ 하늘이 인간의 길흉화복을 주관하는 것이 아님을 모르고 있다.
 ⑤ 욕망을 예에 따라 충족하기보다 무욕을 지향해야 함을 모르고 있다.

16. 고대 서양 사상가 갑, 중세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갑: 절제의 덕은 우리가 자연, 즉 인간 본성과 합일할 때 나타난다.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적절함이다. 자연은 우리가 어떻게 행위해야 할지에 대해 가르친다.
 을: 절제의 덕은 욕구를 제어하여 악행을 막는다. 덕은 악덕과 정반대이다. 신의 나라에서 최고선을 완성하기 위해 우리는 악덕이 없는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.

- ① 갑: 자연에 따르는 삶은 욕구를 이성에 복종시키는 삶이다.
- ② 갑: 인간은 자신의 본성을 거스르지 않아야 할 의무를 지닌다.
- ③ 을: 신은 참된 행복의 원천이며 선과 악의 궁극적 원인이다.
- ④ 을: 선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만으로 선한 사람이 될 수 없다.
- ⑤ 갑, 을: 신의 섭리를 따르고 덕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.

17. 중국 유교 사상가 갑, 을과 한국 유교 사상가 병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 [3점]

갑: 심(心)과 성(性)은 스스로 분별된다. 신령한 곳은 다만 심일 뿐이요 성이 아니다. 성은 단지 이(理)일 뿐이며 성에는 인의예지가 있다.
 을: 심이란 보고 듣고 말하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니, 이것이 바로 성이다. 성은 심의 본체요 곧 이(理)이다. 천하에 어찌 심 밖의 성이 있으며, 성 밖의 이가 있겠는가?
 병: 심은 본래 덕을 가지고 있지 않고 곧은 성만이 있을 뿐이다. 나의 곧은 심을 능히 행하는 것을 일러 덕이라 했으니, 선을 행한 후에 덕의 이름이 성립하는 것이다.

- ① 갑은 시비가 분별되는 최종 근거는 성이 아니라 심이라고 본다.
- ② 을은 양지는 타고난 것이며 앎을 더할수록 완전해진다고 본다.
- ③ 병은 덕을 갖추려면 성의 악한 기호를 극복해야 한다고 본다.
- ④ 갑, 을은 사욕을 제거하여 마음을 바로잡는 것을 격물로 본다.
- ⑤ 을, 병은 선을 좋아하는 감정은 하늘이 부여한 것이라고 본다.

18.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 [3점]

- 목적의 나라에서 모든 것은 가격이나 존엄성을 갖는다. 가격을 갖는 것은 같은 가격을 갖는 것으로 대치될 수 있으며 가격을 초월하는 것은 존엄성을 갖는다. 목적 그 자체일 수 있는 조건을 가진 것은 존엄성을 갖는다.
- 자기 사랑의 준칙은 단지 충고할 뿐이지만 도덕 법칙은 명령한다. 충고받는 것과 명령받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.

- ① 인간의 자기 사랑의 준칙은 필연적으로 도덕 법칙이 되는가?
- ②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고 목적 그 자체로 대우받아야 하는가?
- ③ 인간은 자연법칙의 지배 아래 있지만 자유 의지를 지니는가?
- ④ 인간의 자율과 도덕적 의무 이행은 서로 양립할 수 있는가?
- ⑤ 인간은 경향성 때문에 의무에 맞는 행위를 할 수 있는가?

19.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만을 <보기>에서 고른 것은?

인간은 “자신이 지금 어떤 존재인가?”에 대해 주인이어야 하고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. 자유롭도록 선고받은 인간에게 이 책임은 자신의 개별성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에 대한 책임을 뜻합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되기 원하는 인간을 창조하는 행위는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인간상을 창조하는 행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.



< 보 기 >

- ㄱ. 인간은 자신이 실천할 도덕을 주체적으로 선택해야 한다.
- ㄴ. 인간은 신에게 자신을 내맡길 때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.
- ㄷ. 개인은 자기 본질을 형성할 때 인류에 대한 책임을 지닌다.
- ㄹ. 개인의 실존은 타고난 인간의 본성을 실현할 때 회복된다.

- ① ㄱ, ㄴ ② ㄱ, ㄷ ③ ㄴ, ㄷ ④ ㄴ, ㄹ ⑤ ㄷ, ㄹ

20. 사회사상 (가), (나)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<보기>에서 고른 것은?

- (가) 경제 공황과 실업은 유효 수요의 부족으로 일어날 수 있다. 정부는 공공지출을 확대하고 위축된 투자를 활성화하여 유효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.
- (나) 경제적 수탈은 자본주의가 초래한 결과이다. 정부는 계획경제 안에서 공평한 분배를 이루고, 의회를 통한 점진적 개혁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해야 한다.

< 보 기 >

- ㄱ. (가): 자원 분배는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만 의존해야 한다.
- ㄴ. (나): 경제정책 수립에 생산 조합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.
- ㄷ. (나): 공평한 분배를 위해 모든 생산수단을 공유해야 한다.
- ㄹ. (가), (나): 정부의 경제정책은 완전고용을 목표해야 한다.

- ① ㄱ, ㄴ ② ㄱ, ㄷ ③ ㄴ, ㄷ ④ ㄴ, ㄹ ⑤ ㄷ, ㄹ

* 확인 사항

○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(표기)했는지 확인하십시오.